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9천피 시대에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 (6월 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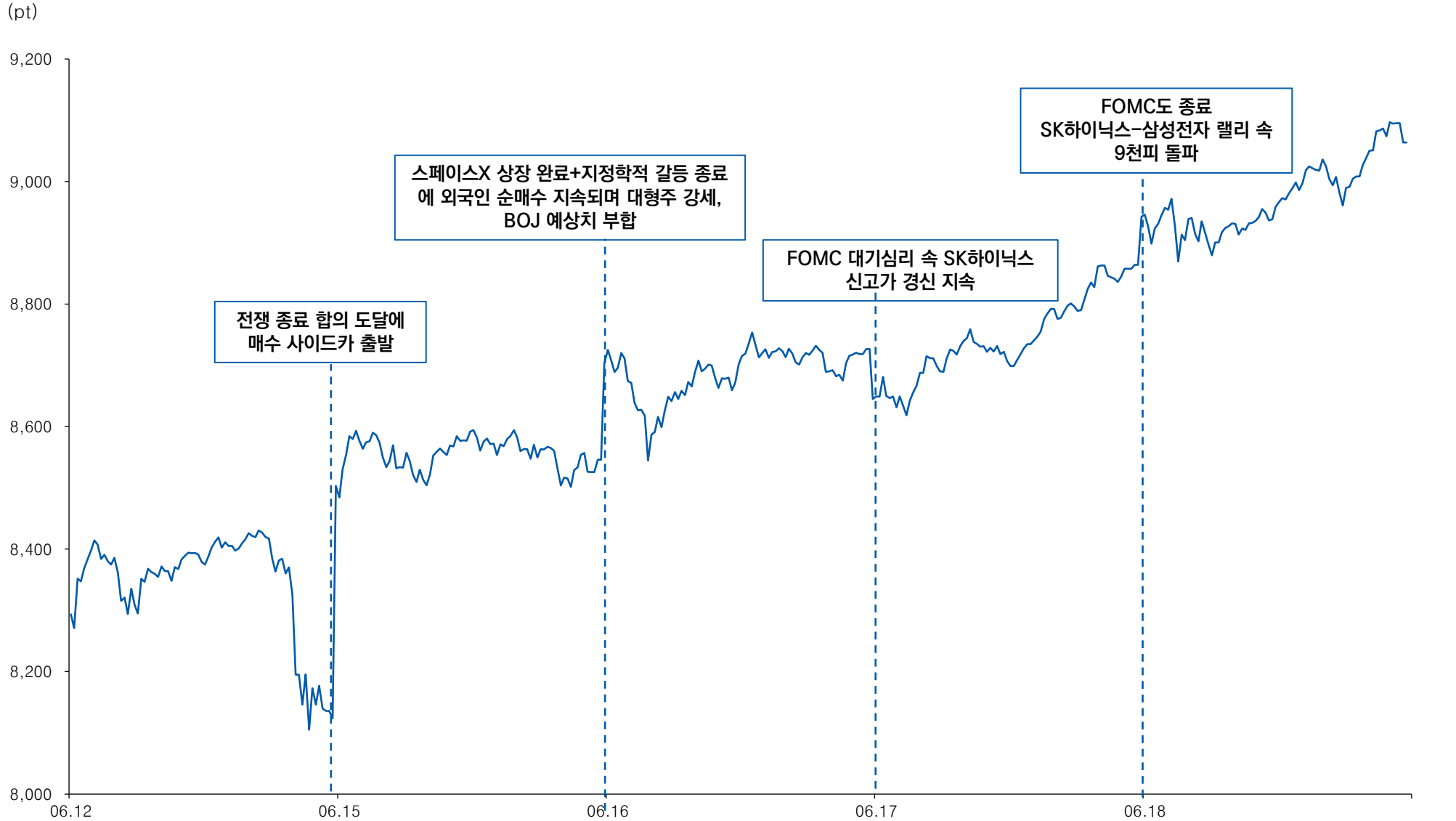
SUMMARY

9천피 시대에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 (6월 4주)

- 주간(6/12~6/18) KOSPI, KOSDAQ은 각각 16.7%, 0.4% 상승했습니다. KOSPI는 7,400pt까지 밀린 이후 일주일 만에 9,000pt를 경신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신고가 경신은 KOSPI에만 해당했습니다. KOSDAQ은 1,000pt를 하회하며 반등 강도가 제한됐고, 시장 전체의 복원이라기보다 반도체·IT 대형주 중심의 압축 랠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 이번 반등은 과도했던 공포의 정상화였습니다. 미·이란 종전 MOU 체결 이후 유가는 빠르게 안정됐고, 미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FOMC는 점도표와 경제전망이 3월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됐지만, 시장은 이를 추가 긴축 우려보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전쟁, 유가, 금리, AI 투자 우려를 한 번에 반영했던 구간에서 악재의 강도가 완화되며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도 마무리되자 KOSPI 대형주 중심으로 숏커버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 KOSDAQ 부진은 단순 낙폭과대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장기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둘째, KOSPI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반면 KOSDAQ은 이익 개선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금리 인상 시사 이후 고PER 성장주 비중이 높은 KOSDAQ은 할인율 상승에 더 취약합니다. 과거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동결을 멈추고 인상 국면으로 전환할 때 KOSDAQ은 KOSPI 대비 약했습니다. 수급, 이익, 금리 세 가지 모두 KOSPI 우위의 환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다음주는 한국시간 25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이 핵심입니다. FOMC와 지정학 리스크가 한 차례 소화된 가운데 시장의 초점은 다시 2분기 실적과 EPS 상향 여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시가총액 격차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ADR 상장 기대, 추가 주주환원 기대, 스페이스X 모멘텀 등 단기 재료도 있었지만, 본질은 실적입니다.
- 반도체 수출 호조, 메모리 가격 상승, KOSPI EPS 개선이 유지된다면 지수 하단은 이전보다 더욱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KOSDAQ은 개인 수급 복귀와 이익 추정치 반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상대 열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은 확산보다 압축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기계와 같은 호실적 수출 업종들은 여전히 순환매 및 장기투자 관점에서 우호적이나 반도체 투톱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실적 확인 시점에서 상대수익률이 아쉽기에 반도체, IT하드웨어, 은행 등 이익과 수급이 동시에 확인되는 KOSPI 대형주 중심 접근이 유효합니다.

곡소리는 어디가고 9천피 시대 개막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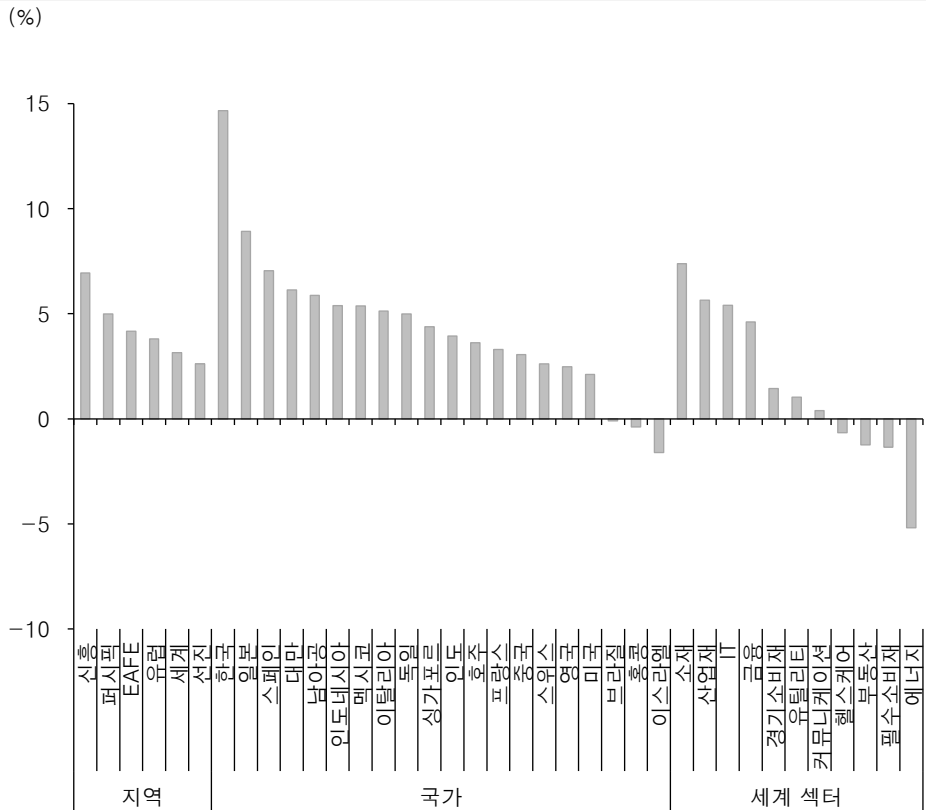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V자 반등 구간, 반도체 & IT 중심 압축 대응이 유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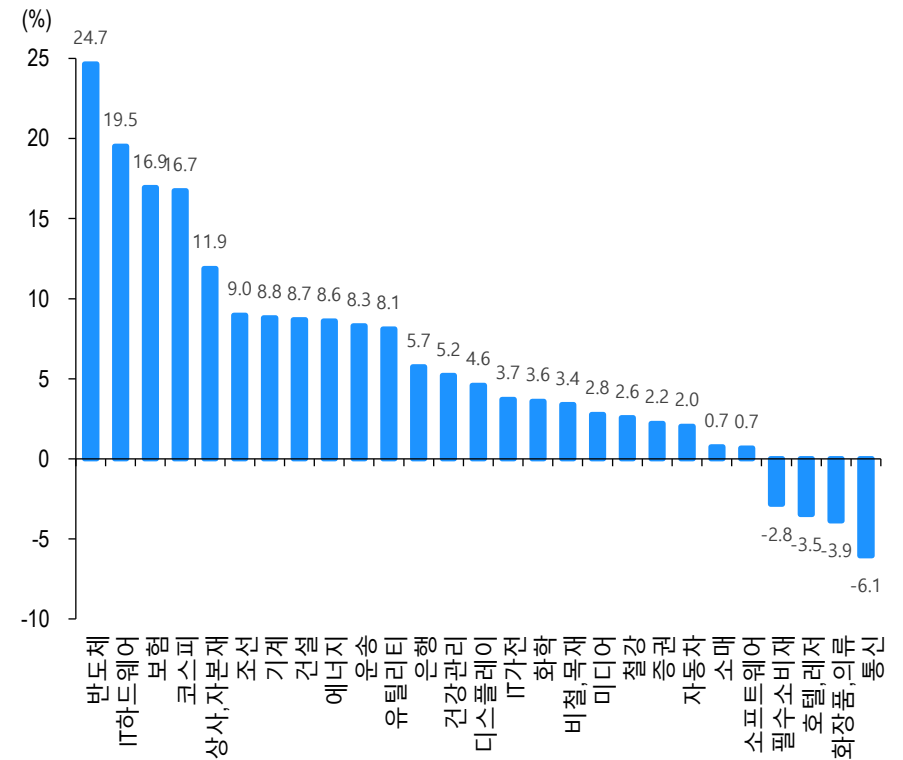
- 주간(6/12~6/18) KOSPI, KOSDAQ 각각 16.7%, 0.4% 상승. 전주 매크로 변동성과 FOMC 대기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됐으나 V자 반등
- 지정학적 갈등 완화로 인한 유가 급락에도 매파적 FOMC 결과 확인 후 확실한 호실적 보장된 대형주, 반도체 쏠림 현상. 2분기 실적 시즌 대기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6월17 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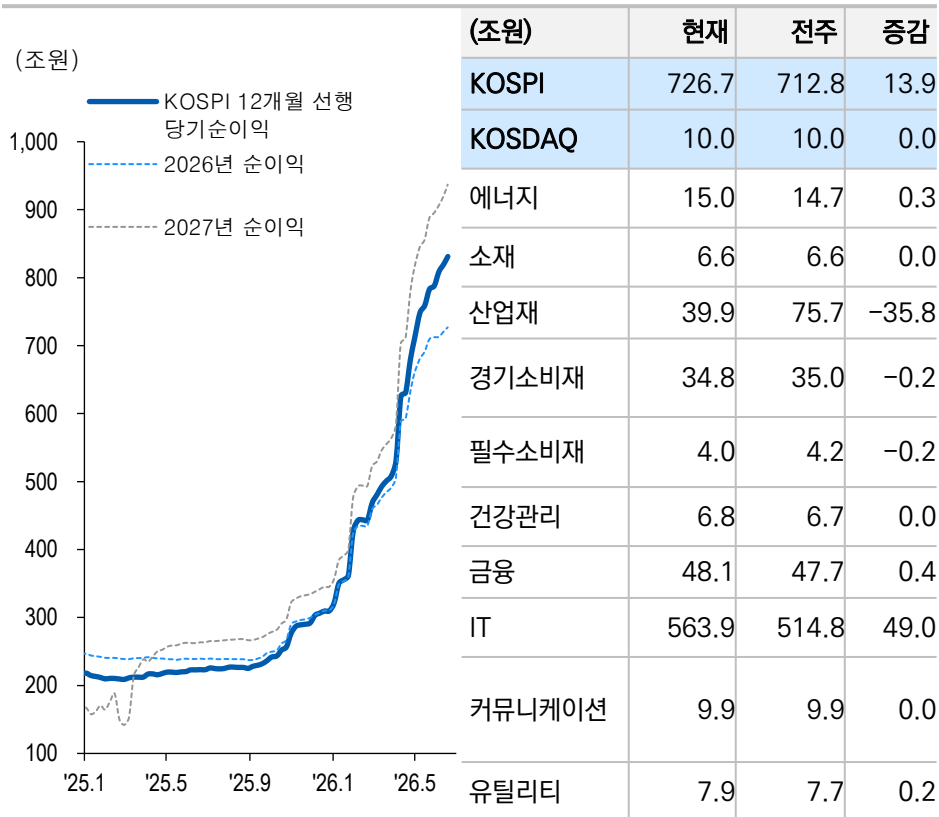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6월 18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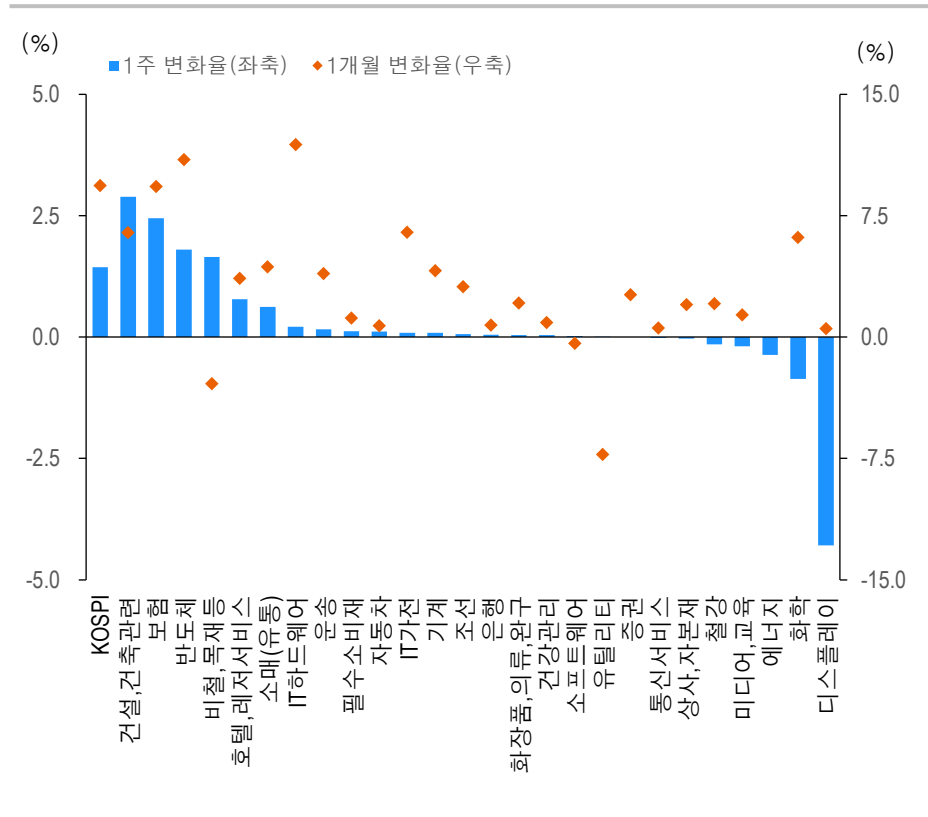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13.9조원 증가
- 주간 산업재 섹터 당기순이익 추정치 급감. IT 섹터 중심 이익 증가 지속
- IT하드웨어, 반도체, 보험 업종 주간 EPS 상승 상위 업종.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업종 주간 EPS 하향 조정 상위 업종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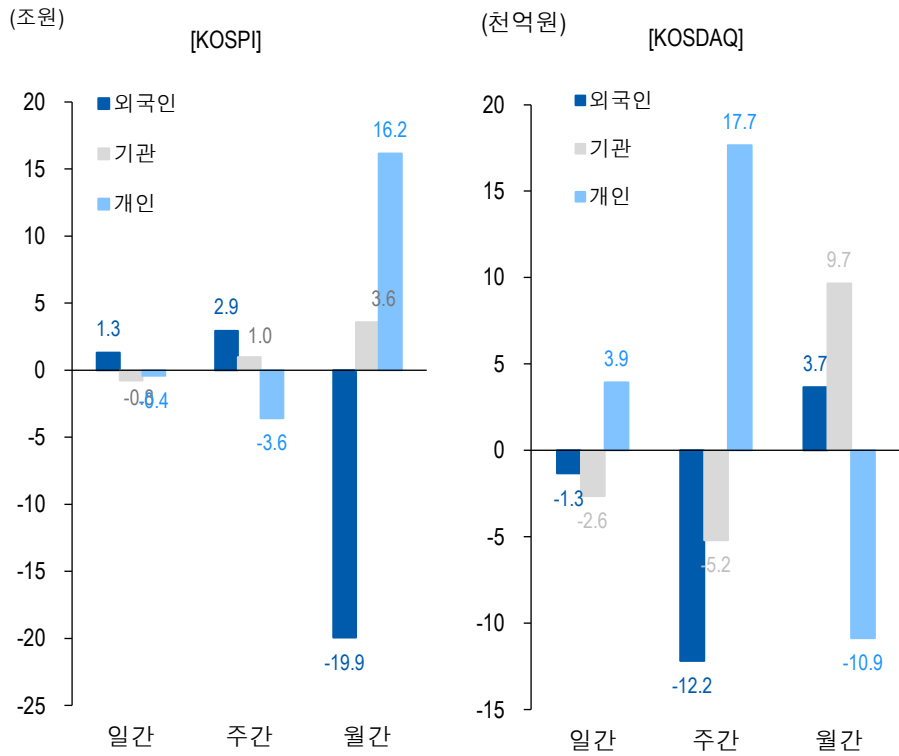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정학적 갈등과 스페이스X 수급 이벤트 종료에 외국인 대형주로 귀환

- 외국인 주간 2.9조원 순매수. 지정학적 갈등 완화에 스페이스X IPO 이벤트도 종료되며 순매수 전환. 매수 업종은 그간 차익실현 매물 출회 지속됐던 반도체, 대형주 중심. (KOSDAQ 포함 KOSPI 중소형주도 외국인 순매도)
- 외국인 반도체, IT하드웨어, 조선, 방산 등 차익실현 해왔던 대형주 순매수 전환. 개인투자자 수급은 해당 대형주 순매도 후 기계, 건설 등 재건 테마와 자동차(로봇), 2차전지 등으로 이동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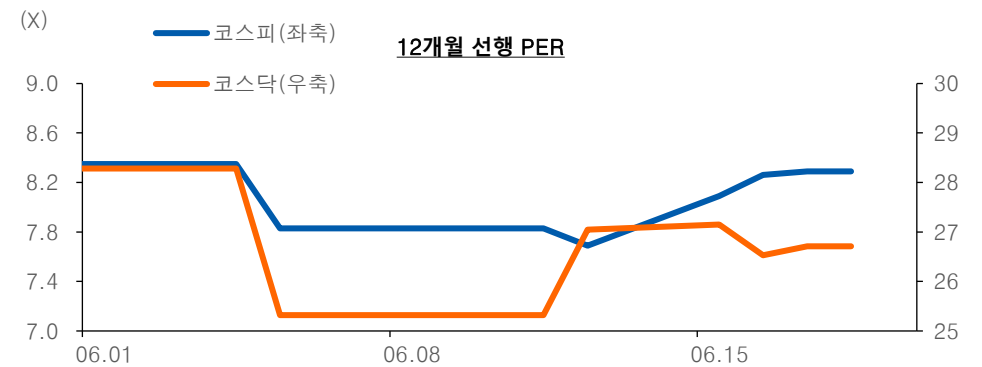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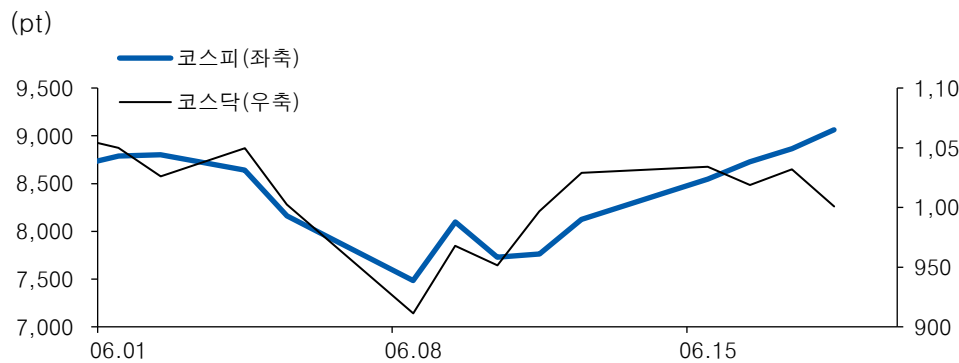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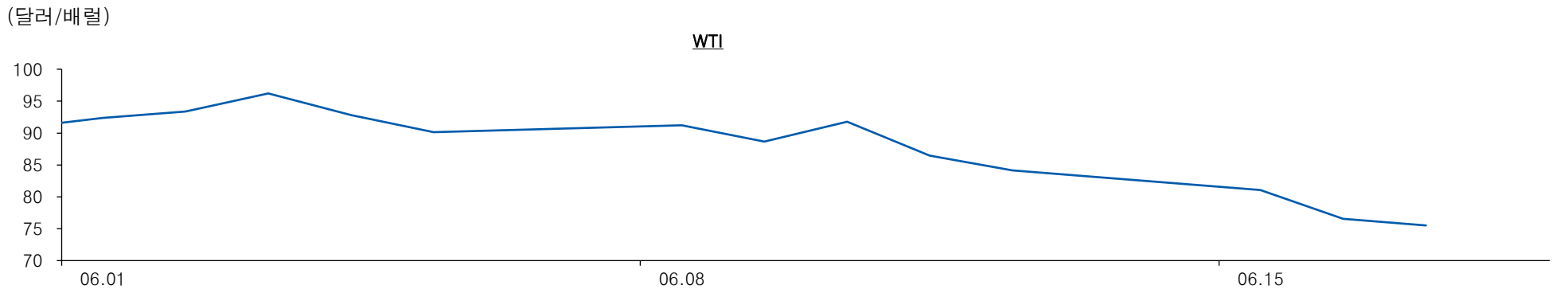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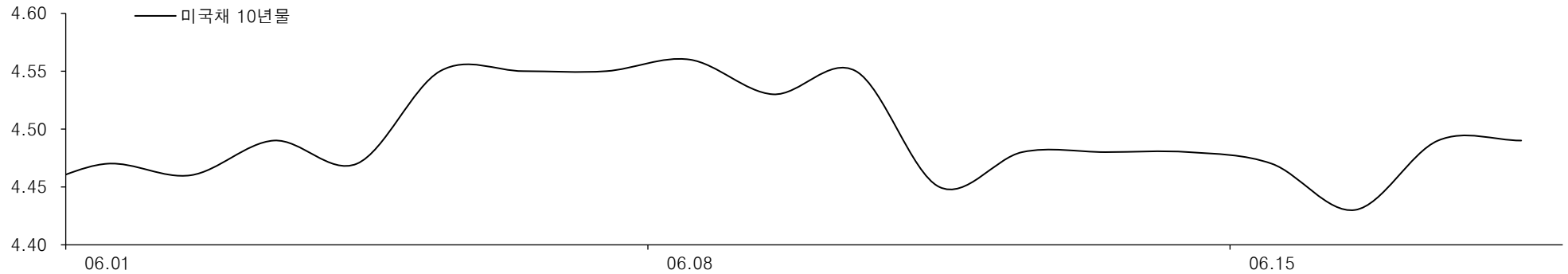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IT하드웨어	반도체	기계
	반도체	은행	건설, 건축관련
	조선	조선	자동차
	상사, 자본재	운송	IT가전
	은행	기계	철강
순매도 상위	호텔, 레저서비스	상사, 자본재	은행
	에너지	소프트웨어	운송
	유틸리티	IT하드웨어	조선
	건설, 건축관련	IT가전	IT하드웨어
	기계	자동차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V자 반등에 성공한 주식시장, 신고가 경신은 KOSPI만 해당

유가 빠르게 하향안정화, 시장금리도 블랙먼데이 이겨냈으나 매파적 FOMC에 반등. KOSPI 9천피 돌파에도 12개월 선행 PER 8배 초반 불과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주일만에 7,400pt → 9,000pt 지수 V자 반등. 결정타는 지정학적 갈등 해소

- 다만, 이를 곧바로 '새로운 기축 사이클로 진입한다'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이번 점도표의 매파적 전환은 의도적인 추가 긴축 예고라기 보다 최근의 헤드라인 물가 상향과 고용 시장 안정이라는 지표에 대한 기계적 반응. 실제 회의에서 인상안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워시 의장도 에너지발 물가 충격의 1차, 2차 파급 여부에 대한 확신 부재하다고 언급. 시장 개입을 꺼려하는 워시의 성향을 확인했기에 앞으로는 발표될 경제지표 및 유가 안정화 및 원유 공급 장기간 정상화 여부를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전망. 현재 시점에서 이번 FOMC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동.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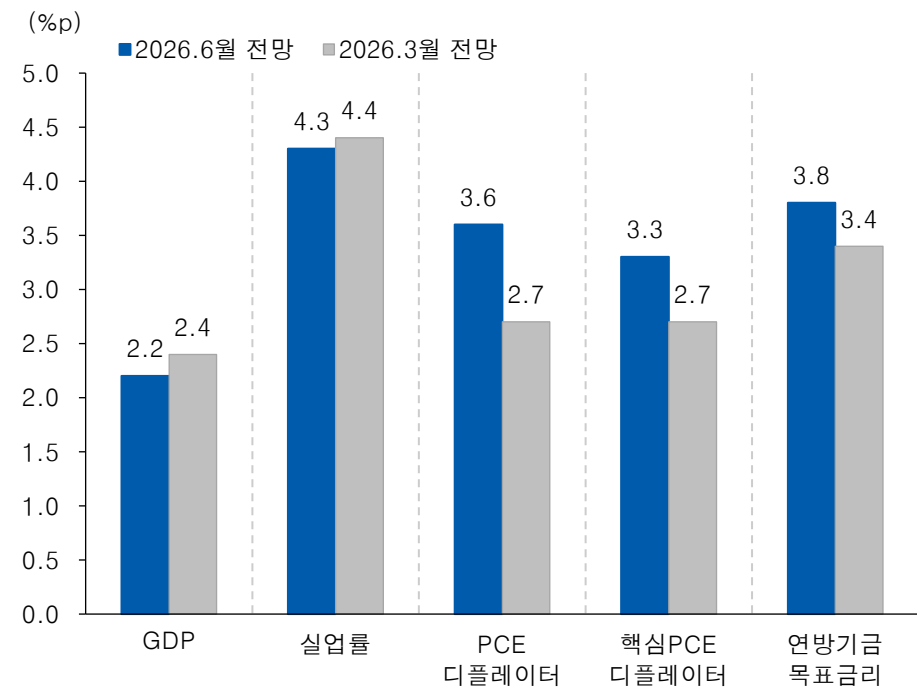
미 고위 당국자 낭독 14개항 : 전쟁 종료를 위한 MOU는 체결(전자) 완료. 이전 60일 최종협상 진입

조항	분류	핵심 내용
1	종전·군사행동 중단	미국·이란 및 전쟁 관련 동맹국들이 모든 전선, 레바논 포함, 군사작전을 즉각·영구 종료. 상호 무력 사용과 위협도 자제. 최종 합의에서 이를 재확인
2	주권·내정불간섭	양국이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
3	최종합의 협상 기한	최대 60일 내 최종 합의 협상. 상호 동의 시 연장 가능
4	미국 해상봉쇄 해제·병력 철수	미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와 방해 행위 제거를 시작하고 30일 내 완전 종료. 최종 합의 후 30일 내 이란 인근 병력 철수
5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은 60일간 상업선박의 무상·안전 통행을 위해 노력. 기술·군사 장애물 및 기뢰 제거를 감안해 30일 내 정상화. 향후 해협 관리 문제는 오만 및 걸프 연안국과 논의
6	이란 재건·경제개발 지원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 마련. 금융거래 관련 라이선스·면제·허가 제공
7	제재 종료 협상	미국은 UN 안보리, IAEA 이사회 결의, 미국 단독 제재, 1차·2차 제재를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종료하기로 함
8	핵무기 비보유·농축물질 처리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 비축 농축물질은 상호 합의한 메커니즘에 따라 처리하되, 최소 방식은 IAEA 감독하 현지 희석. 농축 및 민간 핵수요 문제는 최종합의에서 협의
9	최종합의 전 현상유지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은 현재 핵프로그램 상태를 유지. 미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 내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음
10	이란 원유 수출 허가	MOU 서명 직후부터 제재 종료 전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석유제품·파생상품 수출과 관련 서비스, 은행·보험·운송 등에 면제 발급
11	동결·제한 자산 사용 허용	미국은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 절차를 협의.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 가능하도록 필요한 허가 발급
12	이행 감시 메커니즘	MOU 이행과 최종 합의 준수를 감시할 집행 메커니즘 설치
13	협상 순서·조건부 진행	MOU 서명 후 1·4·5·10·11항 이행이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 착수
14	UN 안보리 결의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UN 안보리 결의로 승인

케빈 워시의 첫 FOMC도 매파적이나 불확실성 해소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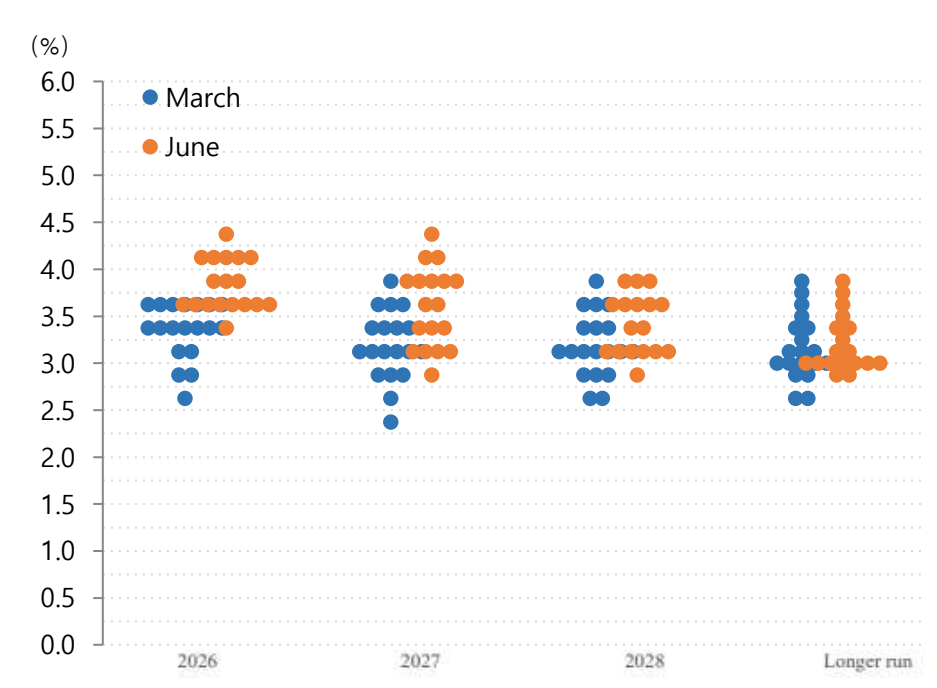
- 이번 FOMC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결과 자체는 매파적. 연준은 정책금리 만장일치 동결. 물가 전망과 점도표 동시 상향. 올해 PCE와 근원 PCE 전망 크게 상향. 점도표상 연내 금리 인상 전망한 위원 절반 수준. 워시, 대폭 축소된 성명서에서 포워드 가이드런스 삭제. 향후 정책 소통 단순화 시사. 물가 안정 우선 기조와 연준 운영체제 개편 의지 동시에 드러난 회의
- 다만, 이를 곧바로 '새로운 기축 사이클로 진입한다'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이번 점도표의 매파적 전환은 의도적인 추가 긴축 예고라기 보다 최근의 헤드라인 물가 상향과 고용 시장 안정이라는 지표에 대한 기계적 반응. 실제 회의에서 인상안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워시 의장도 에너지발 물가 충격의 1차, 2차 파급 여부에 대한 확신 부재하다고 언급. 시장 개입을 꺼려하는 워시의 성향을 확인했기에 앞으로는 발표될 경제지표 및 유가 안정화 및 원유 공급 장기간 정상화 여부를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전망. 현재 시점에서 이번 FOMC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동.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

3월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된 Fed 목표금리 및 경제지표 전망치 (중간값 기준)



자료: Fe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월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된 점도표



자료: Fe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마이크로 실적 왔습니다

6월 4주차 주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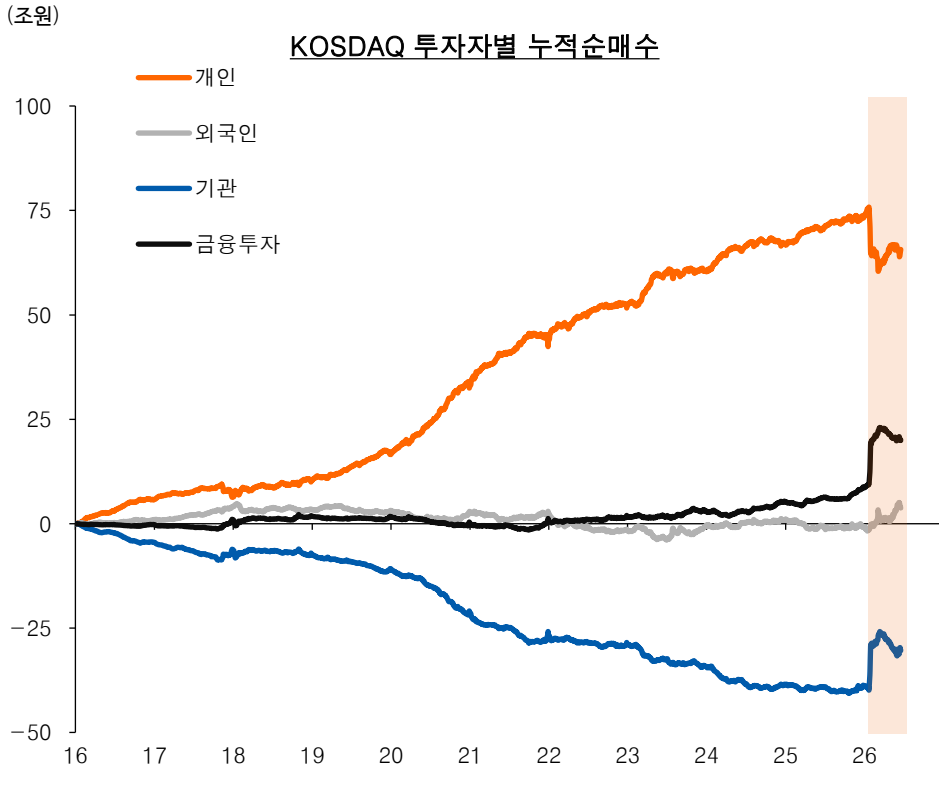
	6월 22일(월)	6월 23일(화)	6월 24일(수)	6월 25일(목)	6월 26일(금)
경제지표	중국) 6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미국) 6월 S&P 글로벌 마켓 PMI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정치					
기업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6/22~6/25)	미국) 페덱스	미국) 마이크로 (한국시간 25일 새벽 5시 30분)		
주목 Point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전 마이크로 실적으로 실적 시즌 시작. 매크로 지표, FOMC, 지정학적 이슈까지 전부 소화된 가운데 실적으로 모멘텀 쓸릴 전망. 예상치 상회 실적 및 가이던스와 그로 인한 목표주가 상향은 마이크로가 국내 반도체 투톱과 동일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기에 한국 주식시장에 우호적 변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KOSDAQ 문제점 ① 장기 순매수 주체로 자리잡던 개인투자자의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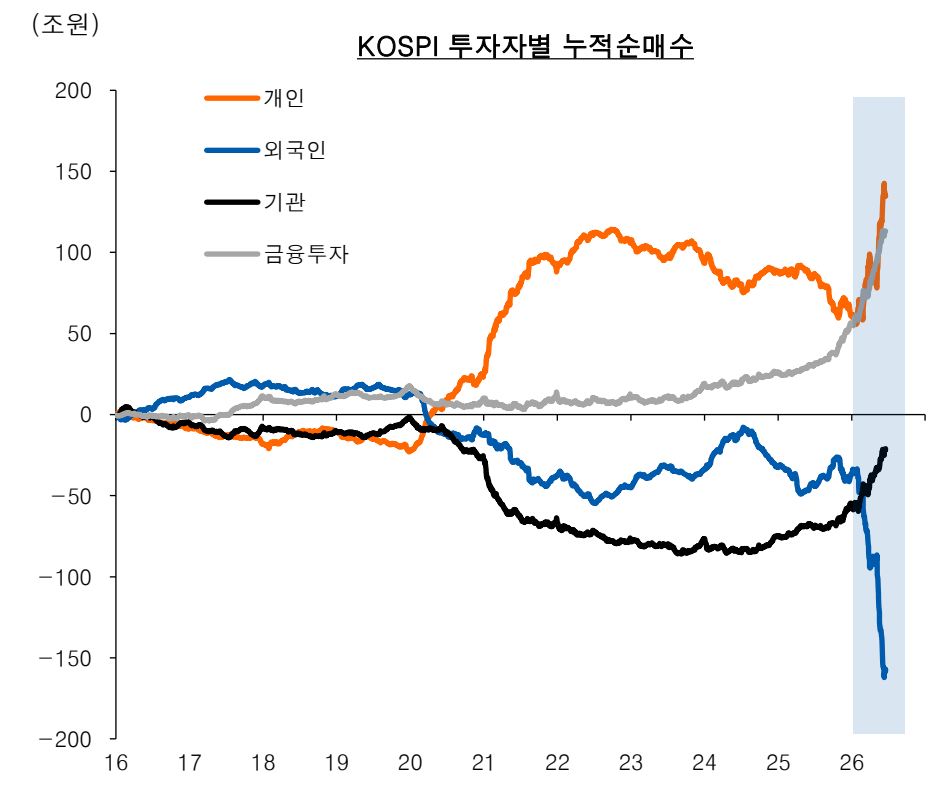
- KOSPI가 9,000pt를 돌파할 때 KOSDAQ은 1,000pt 하회. 연초 이후 KOSPI +115.1%, KOSDAQ +11.5% (6월 18일 종가 기준)
- 개인은 연초 이후(KRX+NXT 합산 기준) KOSPI 100조원 순매수 했으나 KOSDAQ은 4조원 순매도(외국인, 기관 각각 2조원, 8조원 순매수). KOSDAQ 장기 순매수 주체는 개인. 기관은 KOSDAQ 장기 매도 주체 & 외국인은 방향성 베팅 부재.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KOSDAQ 지수 방향성에 영향력 미미
- 문제는 빠앗긴 수급 복귀 위해서는 현재의 대형주 랠리가 끝나야 한다는 것. 호수출-호실적 지속되는 상황에서 KOSDAQ 순환매가 어려운 이유

비가오나 눈이오나 장기 코스닥 부양 주체로 자리잡던 개인투자자 자금 이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급은 대형주로 이동, 개인투자자 수급 복귀 위해 대형주 약세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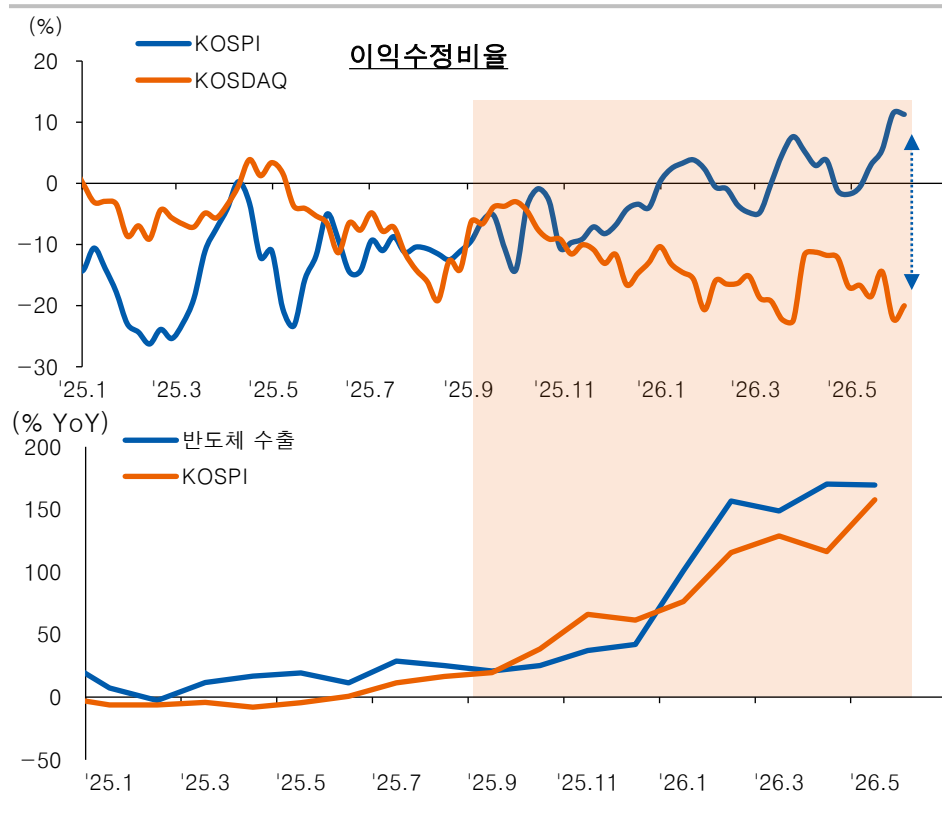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문제점 ② KOSPI 대비 이익 열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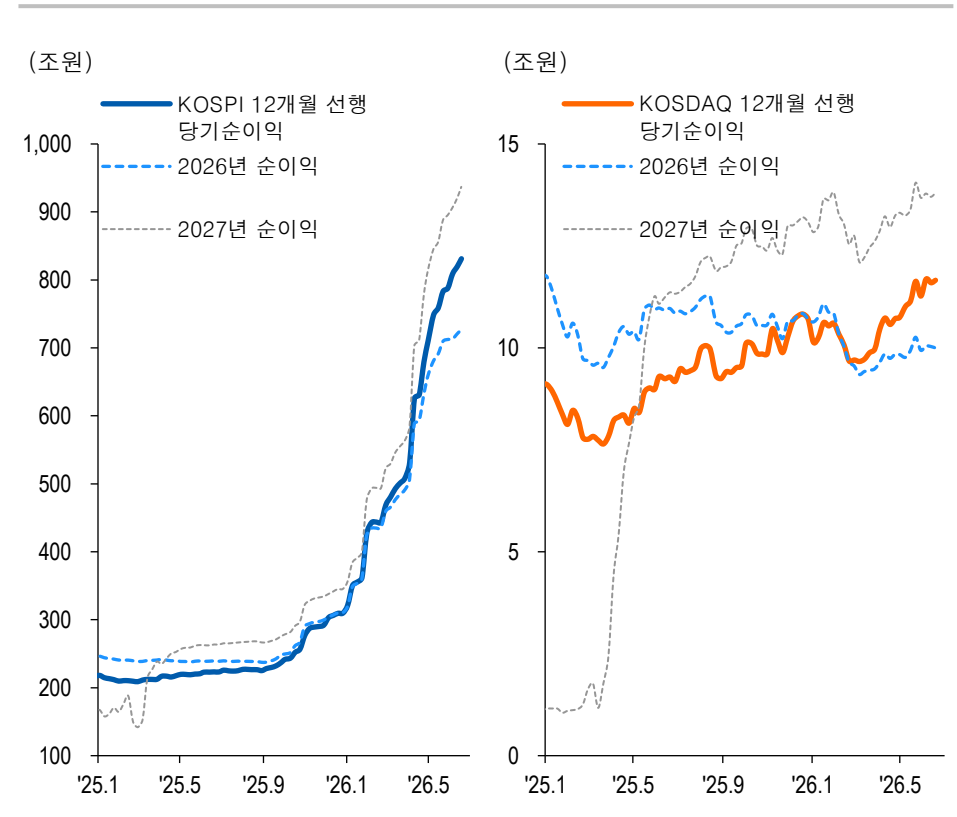
- 6월 18일 기준 KOSPI 2026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727조원, KOSDAQ은 10조원으로 KOSDAQ 대비 KOSPI 이익추정치 73배, 시가총액은 KOSPI 7,200조원 KOSDAQ 562조원 으로 12.8배. 과거 대비 증가한 KOSPI 이익 추정치 고려했을 때 현재의 시가총액 차이도 문제 없는 수준
-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는 KOSPI 수출 2분기 들어서도 최고치 경신 예정. 호수출로 인한 호실적, 그로 인해 이익추정치 지속 상향되는 와중 KOSDAQ은 지속 하향 조정. 문제는 양 지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고려했을 때(KOSPI:반도체, KOSDAQ: 바이오텍, 2차전지) 이익수정비율 갭 확대될 것이라는 점

문제는 반도체 주도력 약화될 기미 안보인다는 것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점점 확대되는 KOSPI-KOSDAQ 이익 추정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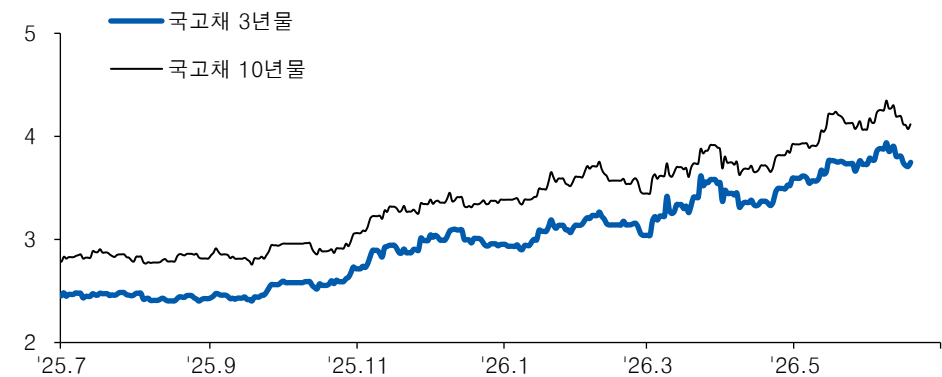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문제점 ③ 금리 인상에도 KOSPI 대비 취약

-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톤은 빠르게 매파적으로 전환.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 소수의견 2명이 등장했고, 신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 이후에도 물가, 환율·부동산 부담을 근거로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를 재차 강조
- 고PER, 성장주 비중 높은 KOSDAQ은 할인율 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더 민감. 금리 인상기에도 KOSPI 대비 수익률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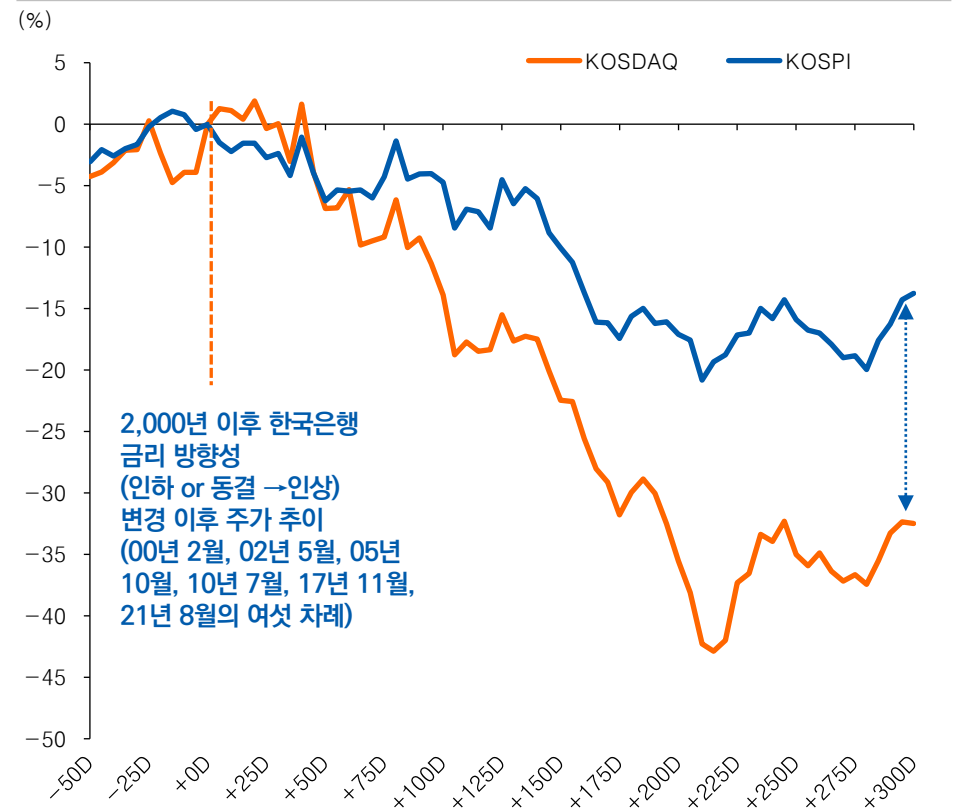
금리 인상 시사 지속하는 한은 총재(위)와 국고채 금리 추이(아래)

날짜	계기	발언 내용 요약
05월 28일	첫 금통위	기준금리 2.5% 동결했지만,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 인상 필요성 언급. 인상 소수의견도 2명 등장
06월 01일	BOK 국제컨퍼런스	성장세가 강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여력이 커졌다고 평가
06월 12일	한은 창립기념사	물가안정을 위해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성장/물가/금융안정 상황이 비교적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설명
06월 17일	물가안정목표 점검	고유가의 2차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를 경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성장주 중심 구성된 KOSDAQ은 금리 인상에도 KOSPI 대비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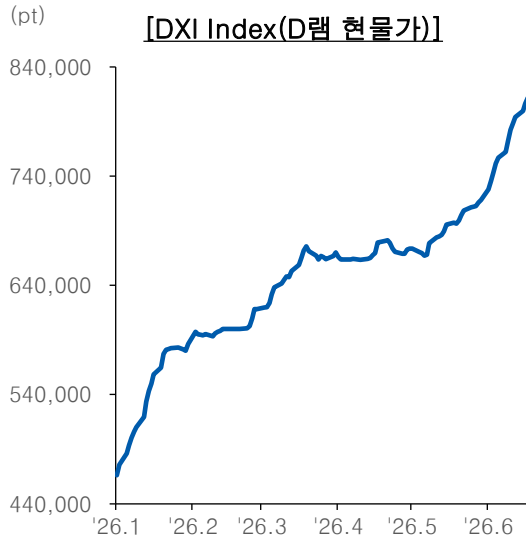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지속, 2분기 실적 시즌 주도주 반도체가 KOSPI EPS 상향 야기할 것

-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개선은 내수보다 수출에서 출발. 특히 반도체 수출과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높은 동행성(상관계수 0.9) 보이며, 현재 KOSPI 이익 사이클의 핵심 축이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에 있음을 시사.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6월 들어서도 가속화 지속. 애플,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 시사
- 현재는 분기말 실적 모멘텀 소멸로 인해 이익추정치 상향 둔화됐던 3월과 비슷한 상황. 2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점으로 실적장세 재개, EPS 재상향 기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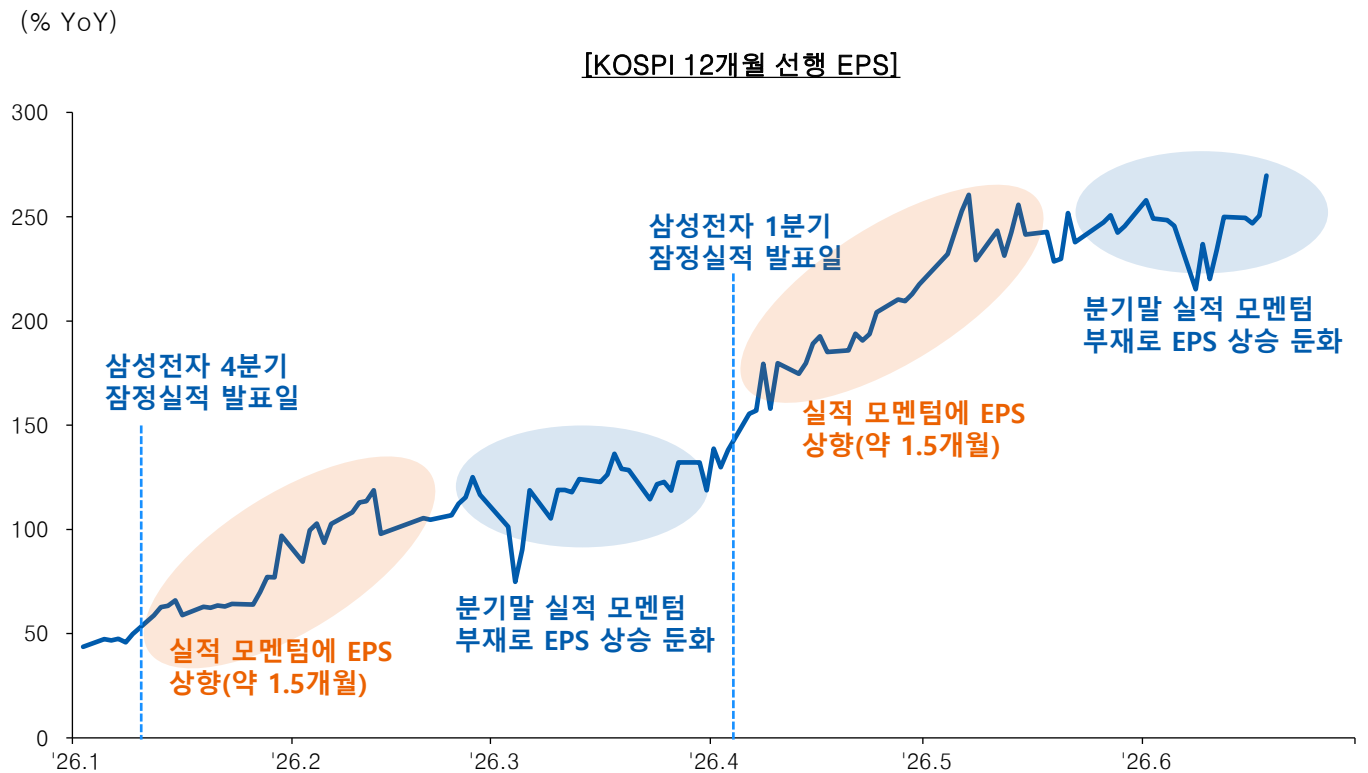
메모리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지속 중



WSJ
Exclusive | Apple to Raise Prices Due to Memory Chip Crunch, Tim Cook Says
 The CEO tells the Journal in an exclusive interview that soaring costs make price increases 'unavoidable'
 19시간 전

자료: WSJ,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모멘텀 없는 분기말, 기를 모으는 중인 KOSPI. 2분기 수출은 7월 이후 EPS 상향 조정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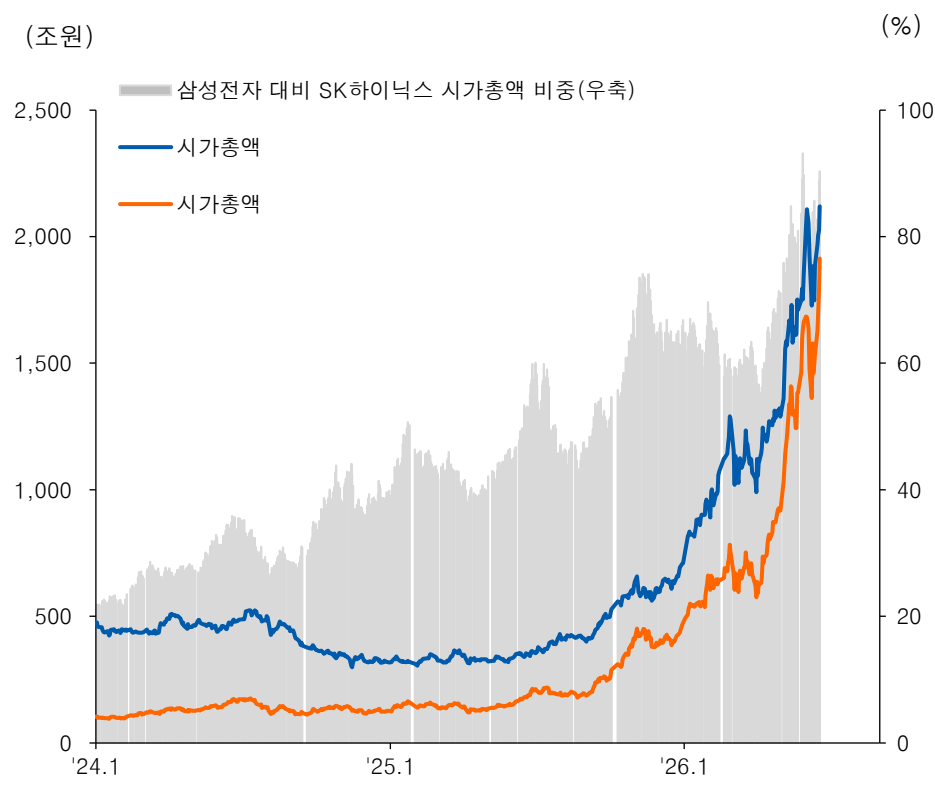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이제 반도체 의심, 차익실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시장은 늘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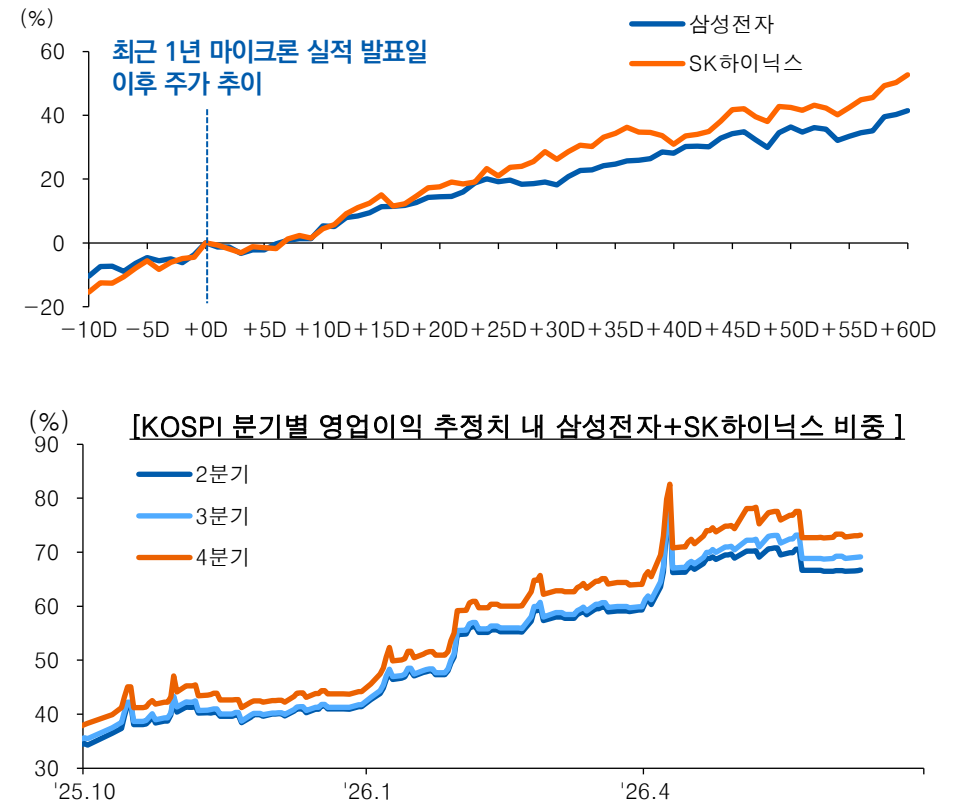
- SK하이닉스 18일 장중 주가 270만원 돌파하며 삼성전자 대비 시가총액 비중 89%까지 축소. 1) ADR 모멘텀 : 나스닥 상장 가능성 가시화.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마이크론 대비 여전히 싸다) 2) 주주환원 모멘텀 : 추가 주주환원 기대 3) 스페이스X 모멘텀: 최태원 회장 머스크 회동 추진 보도 등이 하이닉스 강세 야기
- 현재 이평선 대비 괴리율 커졌고 RSI(14일) 71.98로 SK하이닉스 기술적 조정 가능하겠으나 그럼에도!!! 추세적 훼손은 아님. 지난주~이번주 매크로 지표 등 지나친 우려 속 반도체-IT 중심 압축 대응을 매우 강조했으나, 이를 차익실현 했다면? 지나친 공포 조장에 집중했다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
- 한국시간 25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 확인 후 반도체 이익추정치 재차 상향 기대. 이후 2분기 실적시즌으로 연결될 현재. 미리 주가 상승에 대비할 필요

ADR 등 모멘텀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격차 역대급으로 축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마이크론 실적 예정! 이익을 투톱이 다 버는데, 쓸림이 왜 나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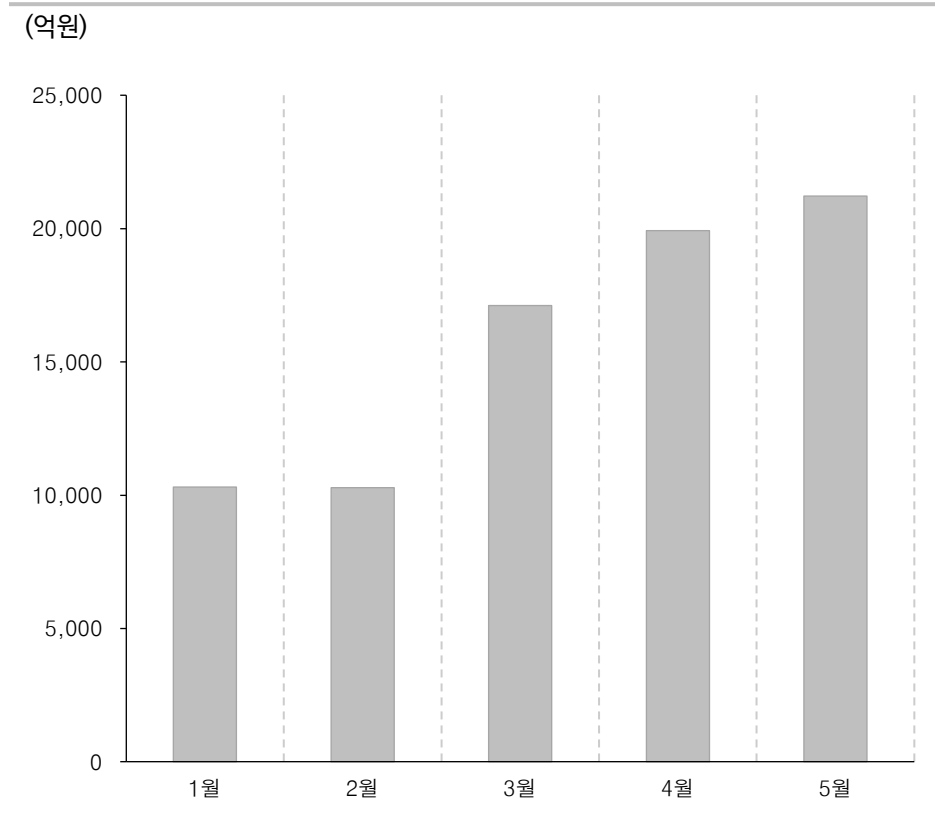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 백화점, 매일 매일 신고가 경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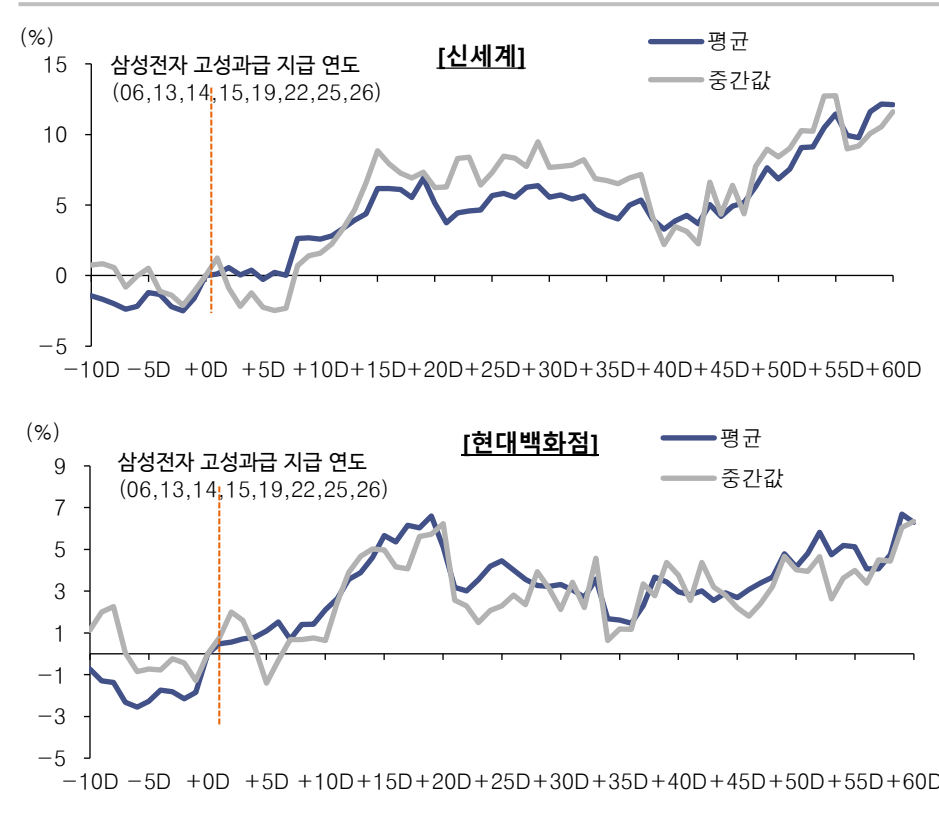
-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에 그치지 않음. 임직원 성과급 지급 통해 지역 소비로 확산되는 구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남부의 경우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연결, 백화점의 객단가 및 방문객수 동반 개선 확인
- 소비 회복 기대와 외국인 매출 비중 증가. 성과급을 받은 자, 주식으로 자본이득을 취한 자, 원화 약세 시대에 관광을 온 자 모두 나에게로 오라. 원화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국내 카드 소비액 증가 추이 지속

외국인 국내 카드 소비액



자료: 한국관광공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고객 성과급 지급 이후, 실제로 백화점 주가가 올랐다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이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